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 홍라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CJ인재원에 마련된 고 손복남 CJ고문의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시스

## JY, 어머니 홍라희 여사와 故 손복남 CJ고문 빈소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손복남 CJ그룹 고문 빈소를 찾았다.

이 회장은 6일 오전 9시쯤 서울 필동 CJ인재원에 방문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도 함께 동행했다.

이 회장은 상주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사촌이다. 고(故) 손 고문에는 조카다. 동서 지간인 흥 전 관장도 고인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과 흥 전 관장은 30여분간 빈소에 머무르며 유족에 위로를 전했다. 조문이 시작되는 10시 전이라 다른 방문객과는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재용 기자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전문적인 용어로 '파산재단'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원리금에 현저히 못미치는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이에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채권자들과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은닉해 둔 재산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특히나 파산 직전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가지는 재산분할심판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했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를 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배우자와 자녀 등과의 관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분할이 진행된다는 점을 판시했다. 즉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채무자의 재산으로서의 경제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 행사상의 일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가 파산선고 직전에 이혼을 했다면, 법원은 파산 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이혼한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 혹 채무자가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파산선고를 내리더라도 그 이후 채무자가 위장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면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심판청구권 자체는 채무자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재산분할심판 과정 역시 재정적인 부분 이외에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혼인 내용,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는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산은닉 목적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면 법원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해 더 이상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진행을 막아야 하며 파산선고 후라면 사기파산죄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의 사기파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선고로 인한 면책결정이 취소되기 때문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

/법무법인 바른



## 삼성, 홍콩서 '더 프레임'으로 디지털 아트 전시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홍콩 사우트 갤러리에서 '더 프레임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우트 갤러리는 홍콩 최대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입구부터 메인 전시관까지 더 프레임 40대를 설치하고 다양한 디지털 형태 작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 한수원,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32대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일 방사선보건원에서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안심카 플러스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비 15억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을 적용한 통학 차량(스타리아 킨드) 3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대한적십자사-링티, 생명나눔 헌혈문화 확산 맞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링티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링티 본사에서 '생명나눔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생명나눔 헌혈운동 전개 ▲헌혈자 건강증진을 위한 물품기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글로벌 총횡무진

## 모잠비크·남아프리카·인니 등 대형 국제행사 참여 전방위 홍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전담조직인 '부산엑스포유치지원TFT'를 구성한 현대차그룹은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등을 세계 각지를 돌며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신제품 출시를 비롯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 대형 국제행사 등과 연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 전방위로 동참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모잠비크공



최원석 주모잠비크 한국대사(왼쪽부터)와 티아고 아구아 기아 모잠비크 대리점 사장이 지난달 모잠비크공화국 마푸투에서 열린 제 8회 모잠비크 국제관광박람회' 현장에서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공화국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국 마푸투에서 열린 제8회 모잠비크 국제 관광박람회 현장에서 부산 엑스포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최원석 주모잠비크 한국대사도 참석해 홍보 부스를 방문한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공화국 대통령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게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알렸다. 같은 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진행된 '2023 베뉴(VENUE)' 미디어 발표 현장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한국과 부산의 차별화 포인트, 비전을 설명했다.

이달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에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5 등 공식 차량 393대를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G20 공식 차량 전달식 현장에도 부산 세계엑스포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안내 책자를 비치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전자, 아프리카 3개국 찾아 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조주완 사장 외교부장관 특사로 탄자니아·에티오피아 등 방문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아프리카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이어갔다.

6일 LG전자에 따르면 조 사장은 최근 외교부 장관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방문했다.

조 사장은 카심 마잘리와 탄자니아 총리를 비롯, 까꾸 후자레옹 아돔 코트디부아르 외교특임 장관, 테스 파에 일마 에티오피아 외교부 정무 차관 등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부

산이 '2030 세계박람회'에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했다.

조 사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모두 포괄하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국가의 도시인 부산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각국 정부관계자도 화답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아프리카 6개국(르완다,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주한 대사 등 외교 관계자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 초청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LG전자는 10년전인 2012년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의 농촌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LG 희망마을' 조성을 시작으로,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LG-KOICA 직업훈련학교' 설립, 참전용사들의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 운영, 콜레라 백신 무상 접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 사장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LG가 KOICA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촌도 방문해 감사를 표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조주완 사장이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특사 자격으로 최근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조주완 사장과 카심 마잘리와 탄자니아 총리. /LG전자